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Ō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복음 전파, 나의 사망 나의 삶

오늘, 2010년
국내전도 및 단기선교 설명회
(찬양예배 후)



지난 제3차 청지기훈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한 죄인들(눅 23:34)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은총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사 32:11).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벧전 2:9).

지금껏 그래왔듯이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전력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누구나 나갈 수 있는 단기선교에도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눅 19:10). 교역자, 장로, 집사회·권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0년 국내전도 및 단기선교 설명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 2010년 전도와 선교의 큰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간이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딤후 1:3).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오늘, 2009년 제7차 성찬식(1~5부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오늘 1~5부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랑의 축제임과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

메시아의 죽음 ⑦

고난의 이야기의 범위와 내용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고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단, 앞으로 우리가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다음에 명시된 고난의 이야기의 범위와 내용이 기준이라는 것만 잊지 말자.

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단, 앞으로 우리가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다음에 명시된 고난의 이야기의 범위와 내용이 기준이라는 것만 잊지 말자.

요한복음(18:1~19:42)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다루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뒤 13장부터 유월절 만찬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의 증보기도부터 고난의 이야기라고 말한다(요 17:20~21).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시내 겔넨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요 18:1)는 시점부터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장사되었음을 기록한 부분이 고난 이야기의 끝이다(요 19:30, 40~42).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 베드로를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14:26~15:47)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곳과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곳이 마가의 집이었음을 볼 때, 그는 예수님과 그 이후의 중요한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마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였다(막 16:8).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부분부터 고난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막 8:27, 31). 또는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부터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한다(막 11:1, 14:1, 22).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 만찬 후부터 고난이 시작되며 무덤에 장사된 것은 고난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으로 본다(막 14:26, 15:47).

마태복음(26:30~27:66) 마태는 고난의 이야기를 율법서에서 설명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으로 말한다(마 26:1~2; 막 14:1).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 만찬 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신 것부터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 고난의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으로 본다(마 26:30, 27:66). 특히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였음을 보여준다.

누가복음(22:39~23:56)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처절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참혹한 고통속에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에 대해 기록하였다(눅 9:51, 13:33, 23:43). 고난 이야기의 시작을 유월절 즈음부터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눅 22:1~2; 막 14:1), 우리는 겟세마네로 가시는 예수님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까지를 고난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으로 본다(눅 22:39, 23:56).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은 겟세마네로 향하여 가신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까지이다. 이 범주와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자! 아멘.

*대중 월도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GOD'S GREAT INVITATION

(2) Listen, O heavens, and hear, O earth; For the LORD speaks, "Sons I have reared and brought up, But they have revolted against Me. (3) "An ox knows its owner, And a donkey its master's manger, But Israel does not know, My people do not understand." ... (17)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Reprove the ruthless, Defend the orphan, Plead for the widow. (18)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will be like wool."

(Isaiah 1:2~18)

How strange and amazing that the holy and glorious God actually invites unholy and inglorious people to come to Him. Human beings don't deserve anything, yet alone such perfect and wonderful grace! Our sinful natures constantly go against God. Our pride and selfish behaviors mess up everything. On our own, we are truly nothing but trouble because we do zero good. In spite of all our evil and wretched actions, God still calls us to Him. One would think that we would seek God before He seeks us, but that simply is not the way it works. God always seeks us before we seek Him. Luke 19:10 says,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ost people, sinners, don't even have the power to come to the Lord. In today's Bible passage, the prophet Isaiah told the people of Judah about God's criticism against them and His great invitation to come to Him. After God pointed out Judah's sins, He asked them to accept His invitation now. It's important to note that God didn't invite Judah to think about His invitation and then get back to Him later, but rather He asked Judah to talk to Him now. The good news is that God's invitation is still valid! Until Jesus returns, people all over the world have the same opportunity as the people of Judah to be saved. Let's look at what God's great invitation is all about.

God's great invitation to reason came at an unreasonable time,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Is. 1:18). Isaiah's nation was in deep trouble. They had turned against the Lord, showing not even the sense of gratitude and ownership that an ox or a donkey shows its master (Is. 1:2~3). They walked around saying that they always followed the Lord, but that simply was not true. They choose not to think about God, but instead think about their own benefit. Corruption was everywhere. Crime and violence characterized the age. Indeed, they were sin-sick people, and their rebellion didn't make any sense in light of God's blessing. Still, God invited them to come to Him and reason together. What a great act of love!

God's great invitation to godliness came at an ungodly time. The source of rescue and restoration was the Lord God. God called to those who had forsaken Him. God called to those

people who had grieved His Holy Spirit. These ungodly people who reminded Isaiah of Sodom and Gommorah (Is. 1:9~10) were hypocrites. Their religious sacrifices (Is. 1:11), festivals (Is. 1:13~14) and prayers (Is. 1:15) were shams. God condemned their religious pretenses, and invited them to be godly,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Remove the evil of your deeds from My sight. Cease to do evil,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Reprove the ruthless, Defend the orphan, Plead for the widow" (Is. 1:16~17). What a great act of mercy!

God's great invitation to cleanliness came at a sinful time. The people of Judah had fallen far from grace. Their sins were many, and yet God promised to clean everything,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will be like wool" (Is. 1:18). How willing would you be to help a friend who turned against you through disloyalty and betrayal? Would you come to him or her in their time of need and offer to fix everything for them? God offers full pardon and full restoration of your relationship to Him. What a great act of grace!

My dear friend, we are living in an unreasonable, ungodly, and sinful time. Our present situation is exactly like the people of Judah. God is calling you right now! He is inviting you to come to Him now, and reason together with Him. All you have to do is come to Jesus and there will be a wonderful result. Psalms 51:17 says,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When you cry out to Jesus and repent of your badness and pride, and ask Him to forgive you, God listens. God loves such a beautiful heart. God is calling sinful people to come to Him right now, just as you are. He meets sinners where they are and cleanses them. He will forgive and cleanse all who come to Him, no matter how unreasonable, ungodly, and sinful the situation. 1John 1:9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Jesus loves you and will release you from your sins by His blood (Rev. 1:5). God is inviting you to come now. There is a big reason for His invitation. Please accept it and receive His love, mercy, and grace. Amen. 

【다음 주일 설교】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진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㉒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2~18)



김성관 목사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패역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놀라우신 은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비열한 이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10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곧 죄인들은 주님께 나를 힘조차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사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질책과 함께 그분의 자비로운 초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신 후에 주님의 초대를 지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분의 초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에게 지금 응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초대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가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불합리한 때에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 1:18). 이사가가 살던 시대는 깊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감사하건만 여호와를 거역한 그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사 1:2~3).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범죄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죄로 병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해볼 때 그들의 반향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며 서로 변론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경건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의 경건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한 백성을 부

르셨습니다. 외식으로 가득했던 패역한 백성은 이사가에게 소들과 고모라의 백성을 연상케 했습니다(사 1:9~10). 그들의 종교적인 회생(사 1:11)과 절기(사 1:13~14), 기도(사 1:15)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을 책망하시며 경건으로 돌이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16~17). 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죄악으로 가득한 때에 사람들의 깨끗함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갈게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여러분은 배반과 모함으로 자신을 버린 친구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다가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와 자신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경건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유다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께 나아와 함께 변론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편 51:17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올면서 나아와 자신의 잘못과 교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지금 자신에게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불합리하고 불경건하고 악할지라도 말입니다. 요한일서 1:9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계 1:5).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에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

2009년 제3차 청지기훈련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었다

무지함이 평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기뻐하자

●늘 깨어 기도하며

오늘 따라 왜 이리 고백이 많은 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다 되어가고 마음은 이미 청지기 훈련에 가 있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20대 초반 한 형제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세상이 모두 나의 것 같았다(요 5:24). 나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따라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취직, 결혼, 승진 등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 자신을 발견했다.

결혼 후 총현교회에 다닌 지 15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있지만 혹시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교만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돌아켜 보며 회개하곤 한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며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한 무지한 자들을 사랑하시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 해도 나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아니 주님을 믿기도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미한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는 찬송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죄악에 대하여 무지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송점섭(집사, 13교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번 제3차 청지기훈련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느꼈습니다(롬 5:8).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나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의를 의지하며,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완악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제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에 순종하며 영합이 있는 신령원칙적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비록 시험과 고난과 곤고함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당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고전 10:13). 한순간의 기쁨과 환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일의 생명의 가치로 여기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총현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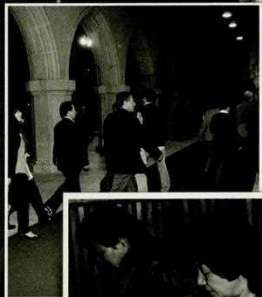
김종렬(집사, 24교구)

●멈추지 않았던 회개의 눈물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저의 교만함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저의 의지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신의 심연의 중죄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지함을 방패삼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믿음에 대해 교만했던 저를 책망하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회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중 믿음의 크기가 자라지 않았을 때에도, 신앙의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회개’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가 하는 짓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함을 방패삼아 세상과 군침해지고 자신과 타협했던 제 자신의 의지가 더 많았던 저의 신앙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 청지기로서 인해 죄 사람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진영(성도, 새가톨릭학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3:34)

네 눈을 밝히며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이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 나 역시 무지한 죄인이었다

제3차 청지기훈련이 다가오면서 교구에서 기도회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에 구역 인들과 이웃을 초청할 필요가 편리했으니 초대에 선택 응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인해 청지기훈련을 말씀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인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답답함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인도하는 것에 낙심한 하고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에 집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갱세마네 동산의 기도부터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러왔다. 나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는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의 것만 추구했음을 회개하였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 죽게 하는 자들의 무지함을 아시기에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초청하려고 했을 때 거절하고 응하지 않는 것에 원망하며 답답해하며 마음이 상했던 것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는데, 나는 복을 전하는 일이 부당스럽고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특별한 때만 전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한다. 앞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도록 다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되길 기도할 것이다.

장세복(권사, 12교구)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번 청지기훈련 때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에서 구속된 저는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기업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생명의 대에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짐(우리의 죄)을 자신에게 지시고 우리가 영생에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되셨다는 것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심도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로코로 쓴 간증문을 외신부 간사가 번역하였다.

임 마르가리타(외신부)

● 채적과 당근의 그리스도

3-4주 전, 저의 상태는 제 자신의 가치관과 잣대로 분노하고 다른 영혼들을 질책하며 정죄한 뒤, 사회와 이웃들 가운데 있었습니니다. 그와 함께 드는 생각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동시에 마음 한 편에 제가 나쁜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렸던 것 같아 무겁고 답답하였습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오 몇 주 전 목사님이 주시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쉼이 되던 차에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라는 주제로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쉼리는 상황 중에 청지기훈련의 주제를 며칠 전에 알았던 터라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회개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안을 받고 표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라는 성경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지한 속에 행해지는 죄악들과 그 무지한 속에서 행해졌도 죄분명한 죄라는 위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 줄 알면서도 죄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어느 민화 중에 그 아이가 다니는 곳마다 꼭 머리 위에 머큐를 얹고 함께 비가 내리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죄가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씀 중에 제가 그 캐릭터와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열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의 가치관과 방법론이 강해진다's 것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하를 혼계와 파팜한 충고 뒤 위로와 위안을 줄 때 '채적과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간구하시고 아버지께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드러남과 동시에 죄책감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저였습니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마음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청지기훈련을 통해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인인 저를 무거운 마음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죄악을 씻어주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메시지에 너무 감사를했습니다.

항상 삼 살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행하고 누우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지한 저희들을 위해 주시는 '채적과 당근'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김현경(전년1부)

●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교구에서도 가장 먼 곳에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드디어 청지기훈련이 있는 날, 우리는 평소대로 4시에 금혼에서 권사님 부부를 태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다른 날과 다른 것은 얼마 전 우리 부부가 전도한 새신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모기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는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모시고 사는 장모님은 몇 년 전부터 치매로 정신이 혼미하신 가운데 있고 지난 달에는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항암치료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심신이 지친 가운데 저 역시도 사모를 당해 머리를 맞출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사는 세 식구가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이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간구하셨습니다. 나는 피를 흘리며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 흘리며 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며 나는 죄없이 고난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도 나의 죄를 모르고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년을 외쳤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절규하는 듯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13년이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나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의 방방'이 있었고 '나의 의'가 있었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던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먼 길을 달려 함께 했던 권사님 부부, 그리고 새신자와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잔치는 끝났고 아쉬워 마땅かり다. 인생이란 손은 흔들린다. 헤어지는 그분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 같은 감동, 은혜가 느껴집니다. 모든 잔치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가슴에 남은 이 말씀은 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손끝에서 다시 이웃들에게로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박찬옥(안수집사, 17교구)

● 예수님 죄송해요

매주마다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고 청지기훈련도 매번 나왔지만, 언제나 얼마가 저를 끌고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청지기훈련도 별 다른 기대 없이 나왔습니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무지한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참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주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너무 모르고 살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언제나 기억하고 믿고 증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청지기훈련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니다.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기도하게 해 주셔서 찬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잃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위임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나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세요.'

이하연(중동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

선교팀에 합류하여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내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나 '영적 무장이 덜 되었어도 무지하고 나 악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뽑아주셨으니가 주님이 능력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마지막 영성심사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 "만약에 선교지에서 죽게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가족은 슬퍼할까요?"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답대 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있어도 믿음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유언 같은 말을 하였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정탐사역을 나갔다. 아름답고 소박한 마을이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모두 낱아 놀라놀라 다들 행복해 보였다. 삼도목 농사를 하기 때문에 큰 가난은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다지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느 마을에서 청년들이 배구를 하고 있었다. 말씀을 전하고 서로 손잡고 찬양을 했다.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도 있었지만, 오히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다. 그도 나중에 알겠지며 주님을 영접했다. 축조전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을 어귀에 있는 논에서 중년의 여인들이 벼를 베고 있었다. 그곳으로 달려간 남자 집사님은 그들 대신 벼를 베고, 우리는 말씀을 전했다. 모두들 어찌나 진지하게 듣는지 우리는 신이 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반복해서 전했다. 서로 손을 잡고 우리 말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 뿌리가 되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논에서 만난 여인들과 청년들이 그 마을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며 기도했다.

매년 선교 때마다 느끼지만 나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깨닫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 돌아와서는 계속 선교지의 말을 속으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곳에 뿌린 복음이 많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한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선교사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중단 없는 선교를 다짐한다.

황경봉(집사, 2교구)

주님의 은혜로

선교는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나에게 단기선교 기회가 주어졌다. 물론 팀 구성 후 훈련 과정에서 몇 차례 포기할 생각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모두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것 같다. 훈련에서 익힌 25개 전도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첫 해외 선교라는 마음에 들떠 현지에 도착했다.

첫날과 둘째 날은 팀원 중 경험자의 뒤만 따라다니는 꼴이 열리지 않았다.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 하자 팀장님이 조를 다시 편성해 주셨다. 그러나 나와 한 조가 된 조원도 선교가 처음인 분이어서 서로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셋째 날 첫 사역은 머뭇거리다 실패하였으나, 넷째 날 사역부터는 마음 속의 기도로 말문이 열렸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따라 이후부터의 사역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남들보다 미숙했지만 만난 영혼들과 함께 영접기도를 하며 그 가정과 가족을 위한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결실을 맺고 선교를 마칠 수 있었다.

송근일(집사, 9교구)

2010년,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의 전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국내전도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자!"

- 전도 원칙 : 1)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
2) 복음의 본질이 드러지지 않도록 복음 이외의 인적, 물적 지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전도한다.
4) 오직 구주되시는 예수님만 높이고 교회나 개인(사람)을 드러내지 않는다.

- 전도 메시지 : 1)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기쁨과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4)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니다.
5)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6)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7)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8)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9)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10)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입니다.
11)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12) 참된 기쁨,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단기선교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따라 선교하자!"

주 제 : 기도하며 나가는 선교(행 13:2-3, 찬 505장)

개 요 : 참된 회개로 통하여 영적 회복을 이루고, 주님의 기도로 따라 기도함으로 영적 회복과 관능을 입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된다.

- 선교구호 : 1)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따라 선교하자
2)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선교하자
3) 회개하여 받은 은혜 선교하여 열매 맺자
4) 십자가 복음만이 좋은 영혼 살려 낸다
5) 앞에는 성령 인도 뒤에는 기도 후원, 낮에는 복음 전파 밤에는 영적 무장
6)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 전하자
7) 복음적인 언행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되자
8)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3일(월) ~ 11월 11일(수)	12교구 3팀	이인용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27일(월) ~ 11월 4일(수)	14교구 3팀	백종운

새가족양육부 10월 수로자

그날 그때까지,
예수님만

✳ 항상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초등학교생처럼 열심히 산송을 부르며 성경공부를 하며 한걸음 한걸음 아버지 곁에 다가갔습니다. 25년을 방황했던 시절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기도회를 나가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다니는 날부터 거듭 태어났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저의 삶을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아버지 딸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경자)

✳ 새가족양육부의 체계적인 교육과 말씀으로 저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슴 속 뜨겁게 벅차오르는 성령의 감동은 눈물로, 기도로 보이며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제 모습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천국진지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예수님만 붙들며 살고 싶습니다. (이진영)

✳ 교회 다니는 저는 오래되었지만 새가족양육을 통해 나의 믿음에 점검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생애가 길든 짧은 주님과 관계있는 것은 다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계수)

✳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최미선)

✳ 삼십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믿음을 통하여'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알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항상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여성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항상 예수님 옆에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윤규)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처한 처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형제들은 전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저는 가끔 아내를 따라 맹목적으로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양육 교육을 받으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이성섭)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36	김윤정	6	청년1부	김순자(6)
1437	배소연	(20)	고등부	김병수(21)
1438	정필립	2	장년3부	
1439	김현숙	15	장년2부	김정남(22)
1440	김성호	2	청년1부	한민교(24)
1441	박천영	19	중등부	박종식(19)
1442	황영석	3	청년1부	온혜성(3)
1443	김용철	7	소망부	김복희(7)
1444	백영옥	6	장년3부	박민호(24)
1445	김동균	18	소망부	김종흠(24)
1446	최한석	15	고등부	
1447	김희정	(10)	청년1부	박춘곤(9)
1448	홍윤화	11	중등부	조아라(11)
1449	임크마	25	외선부	장용숙(21)
1450	이영규	19	장년2부	고윤희(1)
1451	김성경	12	청년2부	정봉성(4)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회개의 기도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 실속만 행한 예수 장사꾼입니다.
나는 예수 피 값으로 산 형제를 판단하고 정직한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위선과 외상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퍼뜨린 거짓 선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 칭송받은 영광 소매치기입니다.
내 정욕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한 내가 자아의 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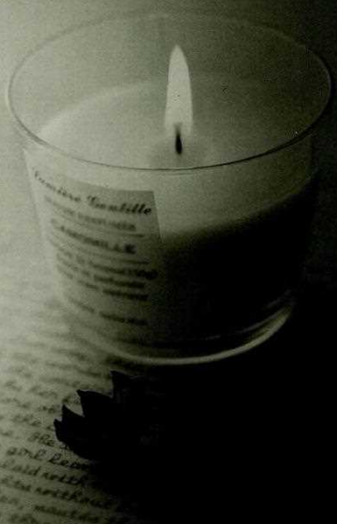
주 예수여, 나를 용서해주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음을 깨닫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임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께서 살이 찢기시고 뼈가 으스러지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께서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자책하고 사죄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고 청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Lord)이시고 나의 구주(Savior)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도말해주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opyright © 2009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